



## '81년도 하계양계강습회 성료

— 부산, 광주, 전주 등지에서 —

양계산업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내용을 양계인들에게 널리 전수하여 양계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계양계강습회가 본회 주최하에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지부장 박영인)의 후원을 받아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습회에는 오봉국 서울대 농대 교수, 오세정 건국대 축산대 교수,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그리고 박영인 미사료곡물협회 한국 지부장이 강사로 참석하였다.

‘양계산업의 방향과 진로’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하였던 오봉국박사는 먼저 양계산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80년대 양계업은 과거의 양산(量産)체제에서 탈피하여 질적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로 양질의 닭고기와 달걀을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양계산업의 진로에 대해서는 과거의 투기적인 성격을 벗어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소비확대와 수요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양계산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양계인은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협회와 축협

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양계업 발전에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오세정 박사는 ‘혹자경영을 위한 특수관리’의 실재’라는 강연을 하였는데 수익성을 높이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장기록을 정확히 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실적분석과 경영평가 및 개선을 철저히 할 것이며, 둘째 낭비와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셋째 육추율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넷째 육계의 출하일령을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하중조절 및 제한급이, 영양수준의 조절급여, 안정감 부여와 불안요인 제거 및 노계값이 좋을 때 도태하므로써 수익을 제고시켜야 하며 환경을 조정하여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사리사욕을 떠나 한데 뭉쳐 참여와 협력에 힘써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말을 끝맺었다.

이어 박근식 계역과장은 각종 질병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제일 먼저 산란저하증후군'76(EDS '76)의 개념소개와 한국에서의 조사상황, 국내 발생상황과 감염빈도, 임상증상 및



△부산지역 하계강습회에서 김중경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리해부 소견, 그리고 예방대책 등을 강의했으며 그 다음으로 열사 및 일사병에 관하여 발생요인, 고온일 경우 닭의 생리적 기능변화를 설명한 후 병리해부학적 특징과 그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다. 그리고 고질적인 카니바리즘의 발생요인과 그 예방책 등 광범위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박영인 지부장의 '양계산업 안정과 계열화체제'라는 강의를 있었다. 박 지부장은 오늘날 경영과 산업발전의 합리화 방안으로 계열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낸 후 생산과정과 도계과정, 유통과정의 설명을 거쳐 사육자의 가격불안 해소와 자재공급자, 도계업자, 유통업자의 이익과 전체수급의 안정, 그리고 산업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계열화가 필연적이라고 역설하면서 미국의 실패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나갔다. 끝으로 한국에서도 계열화 체제를 채택하면 종합경영의 이점을 살려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개선과 소비촉진 목적도 동시에 달성될 것을 믿는다면서 말을 끝맺었다.

첫날 부산의 강습회는 약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금탐에식장에서 있었으며, 11일에는 광주 카톨릭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200여명의 청중의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12일에는 전주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국생명빌딩 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그간 1년에 한번씩 지역사회 발전과 양계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속돼 온 하계 양계강습회는 한국 양계업의 질적인 발전과 양계인들의 권익증진에 공헌해 온 바가 자못크다.

## 감별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현안문제 토의를 위해 —

감별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감별사의 해외취업과 감별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의논된 내용을 보면 서독에 거류중인 감별사 서선영씨의 초청장에 대한 토론에서는 초청된 11명 중 이에 응하는 8명에 대하여는 즉시 여권수속을 밟도록 하고 1년의 계약기간 동안은 반드시 취업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국위선양에 전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는데 파견에 있어서는 양계협회를 통해 일률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 감별분과 내의 파견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0월 중하순 경에는 본회 회의실에서 감별사 자격시험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기본적인 사안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감별사 김희준씨가 스페인(마드리드)에 취업하여 출국하였는데 금년도 감별사의 해외취업은 해외주재 감별사들의 노력과 계속적으로 해외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감별분과의 활동으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 1981년도 제 5 차 이사회 개최



△양계 안정기금 조성에 관해 집중토의  
된 5 차이사회.

8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 5 차 이사회  
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 주요안건은 양계업의 안정과 발  
전을 위해 오랫동안 숙원 과제가 되어온 양  
계 안정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  
다.

금년도 각 지방 하계 강습회를 통하여 양계  
인들의 한결같은 중론으로, 안정기금 조성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집약된 여론 때문에 열  
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진지한 관  
심과 열성하에 열띤 토의가 있었다.

토의 결과 안정기금 조성방안은 우리 양계  
인들의 단독기구로서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업계중진을 포함  
한 협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계, 연구  
계, 유관기관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  
로 하였다.

부의 안전으로는 홍보비 사용에 따른 승인  
이 있었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로서는, 업계 원로 간  
담회, 점정사업인 제 15 산란계 능력검정 완  
료에 이은 제 16회 산란계 능력검정, 지도사

업인 하계강습회, 정화사업의 일환인 자연보  
호 캠페인(경기도 고양군), 채란분야 사업인  
계란수출 및 일간지의 계란수출홍보 등에 관  
한 현황보고가 있었다.

## 부산지부 전화번호 변경

본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중경)전화번호가  
8월 28일 부터 (57) 2872로 변경

## 전북지부 사무실 이전

— 지난 7월 4일 —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인수)는 지난 7  
월 4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새로 이전된 주소는 아래와 같다.

전주시 진북동 1가 294의 10(유신전재 2  
층) ☎ ③ 4653

판매 곤란시  
모든 계란을  
팔아드립니다

계란 위탁판매  
계란 판매알선

〈연락처〉 ☎ 612-4614  
612-0794

김 명 식